

작년 맞벌이·1인 가구 취업자 역대 최대

지난해 고용 회복세에 맞벌이 2만 가구 늘어 통계청 ‘작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발표

지난해 고용 회복에 하반기에 취업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작년 고용 회복세에 맞벌이 2만 가구 늘어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 늘었다.
전체 유배우 가구(1269만 1000가구)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6.1%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

구(406만 9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16만 8000가구로 전년 대비 7만 9000가구 감소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3.3%로 전년 대비 동일했다.
막내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3~17세는 전년 대비 0.9%p 하락했고, 7~12세, 6세 이하에서 각각 0.3%p, 0.2%p 상승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7.0시간으로 전년 대비 1.1시간 감소했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194만 9000가구로 4만 가구 늘었다.
동거 맞벌이 가구 중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35.6%로 전년 대비 1.1%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82.1%), 도소매·숙박음식점업(51.2%) 순으로 높았다.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37.6%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82.1%), 도소매·숙박음식점업(51.2%)에서 높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13.3%), 건설업(14.2%)에서 낮았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는 50~59세 184만 4000가구, 40~49세 158만 8000가구, 60세 이상 146만 6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가구주의 교육정도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는 대졸이상 315만 9000가구, 고졸 199만 2000가구, 중졸 이하 69만 5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대졸이상(50.4%), 고졸(44.9%) 순으로 높았다.
중졸 이하(0.8%p)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고 대졸이상(-0.3%p), 고졸(-0.2%p)에서 하락했다.
◆1인 취업 가구 455만 5000명...10명 중 4명 300만원 넘게 벌어들임
1인 가구는 722만 4000가구로 전년 대비 18만 4000가구 증가했다. 이중 취업가구는 455만 5000가구로 전년 대비 20만 4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63.1%로 전년 대비 1.3%p 상승했다.
작년에 44만 가구 증가해 종전 최대치(2017년·14만 3000가구)를 경신한 이후 두 번째 높은 증가폭이다.
성별로 보면, 1인 취업 가구는 남자 255만 1000가구, 여자 200만 5000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10만 2000가구 증가했다.
성별 취업 가구 비중은 남자는 70.6%로 전년 대비 1.0%p, 여자는 55.5%로 1.5%p 상승했다.

광양항 공 컨테이너 실태조사 외래유해생물 미발견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항만을 통한 유해생물 유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공 컨테이너 소유주인 선사사의 자발적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자 2023년도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 공 컨테이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YGPA를 비롯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터미널 운영사 및 컨테이너 세척·수집업체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공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년 대비 조사수량을 25%p 확대했다.

조사 결과, 공 컨테이너 내 유해 외래생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사한 컨테이너 중 16.96%가 세척·수리 필요로 판정되어 조치 완료했다.



홈플러스 신선농장 확대
홈플러스가 신선 품질을 책임지는 '신선농장'을 기존 700여 개에서 1000여 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델들이 서울 홈플러스 매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신선농장 브랜드와 제철 과일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광주 하남산단 한국알프스, 286억 투자 생산시설 증설

연구개발센터도 개소...80명 신규 고용 창출



광주 하남산단 내 한국알프스(ALPSA)의 생산시설 증설 준공식이 20일 열렸다.
준공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규남 한국알프스 대표이사, 박병규 광산구청장, 백인기 코트라 광주 전남지원단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한국알프스(ALPSA)와 생산시설 증설 및 연구개발(R&D)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은 생산시설 증설에 286억 300만 원, 연구개발센터

구축에 16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연구원 등 80명을 신규 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알프스(ALPSA)는 반도체와 자동차 글로벌 고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첨단소재제품 생산시설의 투자 이행에 따라 연면적 5603㎡·2층 규모의 생산시설을 확충했다.
한국알프스(ULS)는 하반기부터 파워 인터의 생산시설을 갖춰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가며, 헥틱 모듈 등 첨단소재제품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한국알프스 5월 16일 광주 KBI 하남 지식산업센터 내 2078.47㎡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첨단소재분야 연구개발과 기술교류 공간으로 활용한다. /권현안 기자

전남도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박람회’ 신안비치호텔서 45개 기업 참가...346명 채용 예정



전남도가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 공급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선업 취업박람회엔 45개 기업이 참여해 34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조선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력서 등을 지참해 오후 2시까지 행사장에 방문하면 된다.
취업박람회는 1대1 현장 면접과 함께 조선업 취업지원 설명회도 진행한다. 직업심리검사와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6월 화순광업소 폐장에 따른 실직자와 이직 희망자에 대해 조선업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권현안 기자

반도체 부진에 타격...기업 실적 ‘삼중고’ 1분기 기업,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모두 악화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됐다.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등이 모두 전분기보다 축소됐고,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7년 만에 최고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외감기업의 대표적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로 전분기(6.9%)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분기 외감기업 중 상장기업 1983개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 결과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업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 4분기 -6.6%에서 올 1분기 -14.3%로 하락 폭을 확대했고, 석유화학은 9.7%에서 -3.5%로 하락 반전했다.
비제조업에서는 전기가스업은 49.1%에서 19.8%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운수업도 8.1%에서 -5.9%로 떨어졌다.
수출 부진에 대기업의 매출액증감률은 7.5에서 0.7%로, 중소기업은 4.3%에서 -1.2%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제조대기업은 19.1%에서 -2.0%로, 비제조대기업은 14.7%에서 4.5%로 축소됐다. 중소제조업은

3.4%에서 -2.5%로 하락전환했고, 비제조중소기업도 5.2%에서 0.1%로 내렸다.
총자산증가율도 3.7%에서 1.9%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1분기 4.8%에서 올해 1분기 2.7%로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2.5%에서 0.9%로 축소됐다. 대기업(3.8%→1.8%) 및 중소기업(3.5%→-2.4%)도 줄었다.
이성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반도체 수출과 석유 제품 가격 하락으로 제조업의 성장성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비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가져효과로 성장세가 둔화됐고, 운수업은 해상운임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수익성도 나빠졌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부진했다. 수익성지표는 계절성이 있어 전년동기와 비교한다.
올 1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8%로 전년 동기(6.3%) 대비 하락했다. 이는 1000원치를 팔면 63원을 남기다가 이제는 28원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제조업이 작년 1분기 48.4%에서 올해 1분기 25%로 떨어졌고, 비제조업도 4.0%에서 3.2%로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6.6%→2.4%)과 중소기업(5.3%→4.7%) 모두 떨어졌다. /뉴시스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교육 본격화...“라이콘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기초→심화→실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셀러 양성 프로그램이다.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생제작 지원에서 한층 고도화해 전문인들이 온라인 특성에 맞춰 셀링 기법 등을 기초교육하고, 온라인에 맞춰 BM고도화를 지원하며 최종 스토어 입점을 통해 판매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되고, 실전 입점교육으로 집중적인 매출향상을 도모하며, 성과공유대회와 교육영상 제작을 통해 모든 과정이 다른 소상공인과 공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선별된 온라인셀러를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동네펀딩 및 매점용자 등과 연계해 라이콘으로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현안 기자

현대차그룹, SUV 판매 호조...2분기 실적도 ‘쾌청’

글로벌 판매량 꾸준...현대차 영업의 추정치 ‘3조6천억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 2분기에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꾸준한 글로벌 판매량과 고부가가치 차종인 SUV 판매 증가를 바탕으로 실적에 호실적을 보였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3.4% 증가한 2조9801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양사 모두 고부가가치 차종인 SUV 판매 증가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근 흥국증권 연구원은 “1분기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은 53%까지 높아졌고, 제네시스를 포함하면 56%에 달한다”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고마진 SUV 판매 비중을 늘려가면서, 제품 구성을 개선한 효과

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쏘렌토와 텔루라이드 인기가 눈에 띈다. 증권가에선 현대차그룹의 올해 실적 키워드로 ‘해외 사업’을 꼽을 정도로.
실제 기아의 올해 실적은 해외 판매가 주도하고 있다.
기아의 4~5월 글로벌 도매 판매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52만 8000대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 판매는 13% 증가한 42만 8000대를 기록했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실적의 핵심은 해외”라며 “4~5월 판매 선방을 이끈 지역도 미국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14만 1000대가 판매됐다”고 말했다.

광주TP 유망기업 ‘돈맥경화’ 뚫다 IR 개최, 벤처캐피탈 등 투자유치 잇따라



광주테크노파크는 20일 지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VC(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 유망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광주테크노파크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지역 내 12개사가 관련 투자사의 연계 투자를 포함 총 24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투자유치 사업 통해서도 24개사가 총 447억원의 투자를 받는 등 광주테크노파크를 통한 수혜기업들의 투자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또 올해 3월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IR)에서도 참가기업 9개사 중 3개사가

VC 등 관련 투자사들로부터 총 9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추가로 참가기업 2개사에 대한 총 70억원 규모의 투자검토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3월 IR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성과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초 발표한 벤처투자동향에서 ‘2022년 벤처 투자액이 전국적으로 11.9% 감소하는 등 스타트업 투자 분위기에 불거지고 지역에서 이러한 투자성과를 낸 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이날 광주테크노파크 본부중회의실에서 지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현안 기자